

# 송학교회와 생명공동체 이야기

엄태성(목사, 충북 제천 송학교회)

필자가 농촌목회 40년 간을 어떻게 해 왔으며 현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학교회 생명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 1. 농촌목회에 대한 동기와 소명

나는 원래 농촌 출신이 아니어서 농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엿한 농촌목회자가 되었으며 이 일에 한없는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농촌목회를 하다가 나의 삶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그럴만한 동기와 소명 받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8년 재대 후 신학교에 입학한 그 해 여름방학 때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농촌교회 실습을 하도록 돼 있어서 나도 충남의 어느 산골교회에 파송받아 갔었는데 교역자도 없고 교인들도 없는 시골교회였습니다. 주일 낮예배는 아예 모이지도 않았고 밤에만 어린이 몇 명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나는 독신인지라 밥 붙여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 한길 옆 주막집에 사정해서 한 달 간 식사만 해주는 하숙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의

그 집 안 주인은 밤에도 아기를 업고 절구방아를 짚어 이튿날 새벽이면 콩보리밥에 날된장과 상추 이것이 매일의 메뉴였는데 나는 그때까지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식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 때만 되면 밥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아무 탈 없이 삭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드리곤 했습니다. 까실까실한 콩보리밥과 날된장이 왜 그렇게 내 입에 맞지 않았는지 끼니마다 억지로 먹곤 했습니다.

하루는 전도도 할 겸 하숙집 논매는 일을 거들어주다가 그만 더위를 먹고 토사곽란에 걸려 인사불성이 되어 몇 일간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때에 한국 농촌사회와 농촌교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고 이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면 장차 제가 목사가 되어 한평생 농촌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농촌지역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된 동기이며 그 후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강제로 나를 붙잡아 농촌에 왔던 것 같은 소명의식 때문에 혹 중간에 좀 어려움을 당했어도 아주 농촌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고 또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하늘의 벌을 받을 것만 같아 그만두지도 못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문에서 일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농촌선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소명의식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내가 농촌목회를 해 오고 있는 중에 동료 목사로부터 “엄 목사 좀 도시로 나오지 그래. 엄 목사 농촌귀신 되려고 그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구.” 또 어떤 때는 “엄 목사 참 생각 잘했어. 난 엄 목사가 부러워. 엄

목사를 보기만 하면 부끄러워.”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농촌선교니, 농촌개발이니, 농촌운동이니 하는 말을 모두들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런데 지금 그 선교, 그 개발, 그 운동이 다 어디가 묻혀 버리고 피폐한 농촌만 남아 있는가? 한때의 시류에 따른 운동으로써의 농촌선교나 개발이 알차게 열매 맺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뜻 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뛰어 들어 선교하려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소명을 깨닫기까지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무수히 대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 일은 자기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에는 그대로 직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악하고 강박하기로 이름난 바로 왕도 가라 했고 홍해 바다도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솟아오르게 하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시며 거대한 아벨렉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그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기만 하면 복음선교나 개발계획이나 공동체 형성 방법이나 실천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촌선교를 위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 교역자가 농촌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면 한국의 농촌교회는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농촌목회를 위한 전문교육과 훈련과정

농촌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당시 신학교 학장이셨던 이호운 목사님(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의 작사자)으로부터 농촌목회자가 되는데 필요한 교육과 감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설계 과목의 논문에서 교역자는 개교회에서 시범을 보이고 평신도들은 협동으로 개발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로 작성한바 있었습니다.

1962년 봄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일터로 나가려고 하니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만해도 농촌에 대한 의욕만 있었지 실제로 아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년 늦더라도 체계있는 영농기술을 배운 다음에 농촌에 들어가기로 하고 '기독교농민학원'(원장 배민수 목사)에 입학해서 농촌문제와 영농기술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의 농민학원은 상당히 알려진 농촌지도자 양성기관으로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나는 신체검사에서 가입학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앓은 늑막염 때문에 육체노동은 무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을 향한 뜻은 좋지만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육체노동 여부를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었는데 지원자를 일렬로 세워 놓고 한시간 동안 황무지를 개간해 나가는 작업을 할 때 나는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죽자하고 삽질을 했으나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맨 뒤에서 헉헉하면서 “농촌지도자 되기가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 주여 합격시켜 주옵소서” 하고 속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또 학과 시험에서는 나라의 유래가 무엇인지 쓰라고 했으나 몰라서 못 썼습니다. 이 학원에 입학해서는 이른봄부터 추수기까지 한 사람 당 밭 300 평, 논 300 평씩 나누어주고 실습 위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배운 영농기술과 경험이 나중에 제가 농촌목회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전국의 농업선진지 견학여행을 다닐 때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용신 여사가 농촌계몽을 나갔던 경기도 수원 근처의 청석골이라는 마을을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감신 재학 중이던 채 여사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야학을 가르치던 회당이며 부락민들이 모이라고 울리던 종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을 한바퀴 돌아 나오다가 마을 앞 야산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는 채용신 여사의 무덤에도 가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채 여사에게서 종아리를 맞으면서 글을 배웠다는 중노인이 된 사람이 하는 말씀이 지금도 청석골 사방

10리 사이에는 술집, 담배 집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채 여사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민족이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많이 퍼 마시면서 울분을 풀던 시대였고 농촌계몽 나온 채 여사는 그러한 동리 사람들을 달래면서 술병을 빼앗고 글을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민족혼을 일깨우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어 마을 앞산에 묻히게 된 뒤부터는 그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술, 담배를 모두 끊어 버리고 팔지도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얻은 교훈은 농촌운동이란 시작하여 한두 해만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핀 뒤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듯이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훌륭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면에는 그동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거름을 주며 가꾸는 기나긴 세월 동안 비바람도 견디며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희생과 봉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의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단시일 내에 빨리 해치워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지역 개발 사업은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일해 나갈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지역 주민들을 사귀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는 일이 어찌 그리 쉽게 되지겠습니까?

농민학원을 수료한 나는 비교적 조건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일터가 보장되었으나 무슨 건방진 생각에서였는지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농촌교회로 파송해 달라고 자원했습니다(당시의 감리교회는 파송 제도였음). 나는 그때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이 젊겠다, 배웠겠다, 뜻이 있겠다, 전문기술도 있겠다, 한번 어려운 곳에 가서 멋지게 일해서 이름을 날려보고 싶은 사나이의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되어간 곳이 충북 내륙의 소백산 기슭 두메산골 용진 부락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부임해 보니 어려운 조건은 다 구비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교통은 불편하고(배를 타고 강을 네 번 건너야 됨) 교육 수준은 낮고 문화생활은 최하급이고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인데 이영조차 제때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교역자의 생활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도무지 말이 안통하고 소극적이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립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한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은연중에 당신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무엇이든지 잘 배우고 지도를 받아서 개선도하고 개발해야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마치 내가 그들의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떠들며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면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참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도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던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배우러 오기는커녕 알아주지도 않고 가까이 사귀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뒤떨어지고 무식해서 나 같은 사람을 몰라본다고 분개하면서 예잇 이까짓 곳에서 내가 공연히 썩을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그 마을을 빠져나가 갖 결혼한 아내(서울출신)에게 얼른 뒤따라 나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농촌선교에 대한 분명한 소명감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전문교육도 받고 자원해서 산간벽지로 온 것인데 왜 차분히 일할 생각은 아니하고 조급하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며 전업을 서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맡기신 일을 사람이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약 1 개월 동안 나는 교회와 마을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했으나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니느웨로 가야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밀창에 내려가 억지로 잠을 청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뜻 따라나오지 않는 아내와 지도 받기를 거부하는 부락민들에 대한 원망, 애초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 후회스러움, 농촌목회를 그만 둔 뒤

에 올 어떤 불안감 때문에 고민하는 동안 그 해의 수난 주간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큰바위 산밑에서 생수가 솟구쳐 흘러 산아래 넓은 들판이 온통 황금벌판을 이룬 한가운데 서서 거기 모여 온 여러 지역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요로운 결실을 보게 된 것은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하다가 깬 것입니다. 참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나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튿날 나는 굳게 결심한 바 있어 도피해 나왔던 용진 마을까지 100여 리를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 부임하던 때의 야망같은 것도 다 버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나에게 배우러 오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마을에 내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고 겸손하게 나의 농촌목회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제2의 소명이라고 할까.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애쓰며 지게 지고 산에도 가고 논밭도 삼으면서 이집 저집 드나들며 같이 먹고 같이 일하면서 웃고 울며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새 마을 사람들과 친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특별히 그들에게 지도하거나 도움이 되어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교회와 주택을 중심으로 자주 드나들게 되고 교회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 간을 지나면서 서울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내려오니 온 동리 사람들이 목사 안수 축하잔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있는 동안의 경험 중 지금 제일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날마다 논밭과 산으로 다니면서 심한 육체 노동을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용진 마을은 단일 부락 90호, 인구는 400명에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워낙 밀집되어 있는 부락인지라 심방하고 전도하는 일은 일주일에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을 나는 주로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꿀벌도 치고 작잠도

하고 양파재배도 했습니다. 이때 나의 집 식구(장모)에게 “그런 것이 목사가 할 일이나”는 핀잔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소신대로 여전히 그들과 농사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의 나의 중노동은 나의 생활수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나의 기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현장 목회 덕분에 병으로 나약했던 내 몸이 어느새 건강해졌고 밥맛이 꿀맛 같다는 말도 실감했으며 잠도 잘 자고 정신적으로도 썩 보람을 느꼈으며 나중에 내가 사십여 년간 그 어려운 한국농촌 목회생활을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해내게 되는 힘은 여기서 얻어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두메산골에 묻혀서 보람있게 사노라는 나에게 또 무슨 필요가 있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외국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시아 농촌지도자 양성전문학교’(ARI)에서 2년 간 배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의 농촌중견지도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근대화 과정에 있는 농촌 지역 사회개발과 농촌복음선교문제를 함께 공부하며 실습을 했습니다. 내가 2년 간 용진 마을에서 일하는 동안 교회의 자립이 어려워서 결혼패물을 남몰래 팔아가면서 생활비로 충당했었는데 묘한 것은 내가 외국에 나가서 꼭 2년 간 넉넉한 대우를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장학금 전액과 용돈까지 부담해 주었으며 동경의 한국인 교회와 YMCA의 후원도 있었고 용진교회는 나의 가족 3명을 내가 귀국할 때까지 2년 간 보살펴 준 것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봉사하는 삶이란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도 감절로 받고 천국에서도 받지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들이 가기를 꺼



리는 농촌에서 넉넉한 생활을 못하면서 구령사업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갓아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일본체류기간 나는 주로 농촌교회를 통한 농촌복음화와 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와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특별히 전도권 전도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일본농촌이 근대화되기까지 각 지역에서 땀 흘리고 애쓴 민간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지역을 순회하는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뭔가 남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는 지역과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과제)이 있었고 구령열에 불타는 사람 즉, 헌신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종교든 가지고 있었으며 남들을 위한 숭고한 사랑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희생적으로 그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규과목 외에 야간으로 동경 고미네복식수예전문학교 단기과정을 이수하고 통신강좌로 통계실무강좌를 공부하기도 하고 졸업 후에도 전국 애농회(愛農會)와 고도 부화장에서 과학적인 45g 애농양계법을 공부하였습니다.

### 3. 송학에서의 농촌교회 개척과 선교활동

일본에서 귀국한 1967년 8월부터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 마을에 있는 송학 교회로 파송 받았습니다. 역시 담임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은 18평 정도의 민가를 개조한 건물이었고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소문은 아주 나쁘게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사명과 배우고 훈련받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지역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농촌목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바람직한 농촌복음화와 지역개발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가 종합적인 센타 역할을 하면서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스스로 도와 간다면 하나

넘게서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은 ① 헌신적인 자체 지도자와 ② 상부상조하는 교회공동체를 만들고 ③ 필요한 과제를 진행 시키는데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당시의 송학교회와 나는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한가지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선 나는 내가 앞으로 일해 나갈 송학면 시곡리 라는 지역사회를 알아보기 위해 자세히 지역사회의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직업들은 무엇인지, 중요 농산물은 무엇인지, 교육수준과 종교관계, 생활정도, 주민 심리와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교회가 있는 마을은 제천읍에서 8 km 떨어진 근교이며 인구는 796명, 128호 중에 104호가 농가였으며 경지면적은 밭이 754반, 논이 338반, 뽕밭이 149반, 임야가 237정보로 호당 경지면적은 0.9ha밖에 안되는 가난한 농산촌 마을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이보다 적은 0.8ha가 평균 경지면적인데 약 반수 가량은 소작농이었습니다.

이 같은 농토를 가지고 평균 5명의 가족이 생활유지를 하며 자녀교육을 시키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있는 교회인지라 67년도 수입예산은 63,289원이었고, 교역자 생활비는 월 4,000원×12개월이면 48,000원, 나머지 15,280원으로 상부부담금, 기독교 교육비, 전도비, 수리비, 여비 등등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전임교역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후 후임자가 없었던 이유를 알만했습니다. 교회의 자립이 안 되는데 선교와 개발과 봉사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의 목회방법은 무엇일까?

당시 송학 일대의 주요농산물은 감자, 고추, 마늘, 양잠, 옥수수 등이었습니다. 부락민들과 이야기 해보면 거의 모두가 부정적인 말들뿐이고 오래된 고리채가 있는가 하면 혼자 일확천금 하려는 허망한 꿈과 자포자기에서 오는 음주행위와 이에 따르는 가정불화가 많았습니다. 한편 생활경제권인 제천을 중심으로 한 시장조사를 해보았더니 산업인구가 많은 광공업 및 상

업지역으로 이들은 모두 소비인구들이며 주·부식과 일용잡화는 전부 외지로부터 반입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근교에 있는 송학마을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상업적인 농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쓰며 필요한 농산물을 제철에 알맞게 생산한다면 소득증대의 밝은 전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으므로 내가 앞장서서 해 보여야 하겠는데 당시의 교인들은 나의 이러한 농촌목회구상과 계획에 냉담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나 지킬 것이지 뭐 이렇군 저렇군 한다면서 마치 외도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동의를 얻기까지 여러 달 동안 이해시키며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일단 변화된 사람들은 협조가 잘 되었습니다.

나는 전체 교인 모임에서 송학교회의 당면 목표와 기본계획을 토론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마스터플랜입니다.

- 1) 교회당 신축과 교인 배가 운동(건물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므로)
- 2)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정주지도자 양성)
- 3) 자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신용협동체 조직(상부상조하는 협동조직 형성)
- 4) 농외소득사업의 연구와 개발(가내 수공업 형태의 부업)
- 5) 영육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이상과 같은 기본 목표달성을 위해 나 자신부터 다시 가나안 농군학교와 신용협동조합연수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받으면서 교회신도들 가운데서도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교회에서 비용을 전담하여 국내외에서 여러 사람을 육성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우리교회와 지역사회의 핵심적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나는 가

능한 한 그들이 앞장서서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일감을 만들어 주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일만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외부에 나가서는 자랑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이들이 청장년들이 되어 송학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교회의 유관기관에서 유급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으며 참여 능가하는 여러 가정이 됩니다.

송학교회가 송학지역에 차츰 복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서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한 기관과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송학 어린이집

일손이 많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농촌가정의 학령 전 어린이들을 교회시설을 개방해서 하루 종일 보살펴주는 어린이 복지사업을 196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한 집에 3-4명의 어린이가 있었음) 워낙 교회 재정이 빈약하던 때라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게 하고 보모는 교회학교 여교사가 자원봉사자가 되어 돌보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교회는 치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봉사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1969년 정부에서 아동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정식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76년 80평의 교육관을 신축할 때 몇 달간 어린이집을 중지한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 없어졌다고 세수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는다면서 부모들이 찾아와서 빨리 짓자고 거들어 주는 것을 보니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현재도 70명의 어린이와 7명의 직원이 있으며

개원 이래 수료생이 31회 934여명이나 됩니다. 역사가 오래되어 어린이집 출신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는 사회 복지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자모교육의 날이 있어 아무 부담 없이 자모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때문인지 송학교회의 교회학교 유년부는 다른 농촌교회에 비하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도 겸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 2) 송학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상부상조하도록 만들어진 단체인데 송학에서는 1969년 8월 17일 12명이 1,100원의 자금으로 구예배당에



서 시작되었습니다. 만든 목적은 ①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며 악성 고리채를 추방하기 위하여 ② 생산자금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③ 자녀 교육비와 위급한 보건비를 지원하고 ④ 교인상호간에 공동체의식을 높이며 ⑤ 비뿔어진 인생관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처음 조직하려할 때 상당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먹고살기도 힘겨운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느냐? 교회 헌금할 돈도 없는데 출자를 무엇으로 하느냐? 애써 저축해서 누구 좋은 일시키려고 그러느냐는 등 말도 많아 몇몇 교인들만으로 창립되어 처음 2년 간은 육성이 잘되지 않았으나 실무자들을 양성하고 교육에 힘쓰며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마을에 있던 유사한 금고가 해산하고 불신자들까지도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건의해와 정관을 고치고 차츰 차츰 거북이 걸음으로 느리게 성장해왔습니다.

발전과정을 보면 69년 8. 17. 12명 1,100원, 70년 5. 25.

35,259원일 때 첫 대부 시작(건당 3,000원 융자), 73년 12.31. 178명 3,409,073원(정부인가와 자체사무실 신축22평), 76년 12.31. 246명 20,654,550원(모범 농촌조합 표창), 79년 12.31. 388명 136,903,467원(조직 10년 만에 1억 원 돌파 잔치), 81년 12.31. 470명 252,793,068원(2억 잔치), 84년 12.31. 459명 307,360,275원(3억 잔치)

송학신용조합의 특색은 ① 조합원 자녀들에게 80년도부터 신협장학회를 만들어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 사업은 전 조합원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② 공동목욕시설을 만들어 조합원을 위한 무료 이용시설로 제공하였습니다. ③ 신협영농회를 만들어 영세조합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양돈, 양계, 양토, 특용작물 생산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④ 송학신협의 모든 행사는 반드시 교회에서 했으며 시초부터 선교목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임원진 구성과 조합원 분포도 교인 대(對) 비교인의 비율을 3 대 1로 하는 것을 불문율로 지켜왔습니다. 송학교회 담임목사인 나는 이사장도 임원도 아니지만 불신자이던 조합원이 신협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끔 보게되어 기뻐합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전기 200쪽 17행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빈민은행의 창시자였다” 1746년 그는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빈민은행을 설립하고 근면한 영세민에게 저리(低利)로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빈민은행 창설 당시의 총자본금은 30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근소한 자금으로 매인 당 20실링 씩 3개월 기한으로 대부하여 3년 동안에 252명에게 융자하여 주고 상환방법은 3개월 동안에 매주 불로 하였다. 레팅톤이 이 돈의 융자를 받아 런던에서 서적상을 경영하여 매년 5천 파운드의 매상고를 낼만큼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웨슬리와 같이 마음이 뜨겁고 구령열에 불타는 전도자는 지금도 웨슬리와 같은 사회구원을 위한 목회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교인들의 어지간한 생활자금은 신협에서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신용조합 육성

의 필수요건은 임직원의 봉사자세와 조합원간의 공동체 형성과  
원리원칙에 의한 민주적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송학신협은 통화위기(IMF)사태를 고비로 문을 닫고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조합원 1천 여명 자산 30억 원을 조성  
하고도 운영부실로 인하여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① 정관변경(신자 아닌 사람에게까지 개방했기 때문에 신용  
조합 철학을 모르는 이들이 갑자기 많아졌고) ② 사무실을 교  
회 구내에서 밖으로 옮긴 결과(교회와 상관없는 금융기관화)  
③ 조합원과 자산 증가에만 치중하는 외형적인 팽창에만 주력  
하다가 금리인하와 대부금 회수 지연, 경영능력 부족 등 때문  
이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송학교회와 목사는 망했다는 등 악평  
하는 소문이 퍼졌고 실제로 교인간의 보증문제로 잡음도 있었  
으니 어찌 목회에 지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송학신용조합  
은 없어져어도 송학교회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꼭 배로 성  
장했습니다. 예배당이 400평으로 신축되고 교인들은 300명을  
훨씬 넘습니다. 이는 모든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빛보증을 서로 탕감하고 위로하며 신앙적 상처를 안 받고 믿음  
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영성이 폭발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  
한 것입니다. 이때 나는 내가 농촌목회를 잘 못한 것은 결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하  
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된 일을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셨으니까  
요. 농촌목회 하는 분들이 이런 경험도 하며 전화위복(轉禍爲  
福)이 되었으면 합니다.

### 3) 송학 농가부업단지

송학교회의 당면목표와 기본계획 가운데 네 번째가 농외소득  
사업의 연구와 개발인데 이 과제를 위해서 송학 농가부업단지  
가 조성되면서 몇 가지 업종들을 선택하여 농가부업 형태로 운  
영하였는데 그동안 이곳 농민들의 농외소득 향상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으며 상당한 기술축적과 착실한 기반이 다져져서

송학교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1980년도에 새마을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 (1) 기계편물 사업

교회개혁 초창기에는 목사가 직접 십일조 양계법을 가르치고 내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자, 확보한 대지 600평과 양축 시설 200평을 이용해 1973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영을 했었습니다. 일감이 없던 농촌의 겨울 농민들은 무료해서 사랑방에 모이고 화투장을 만지고 술잔을 기울이다가 큰판이 벌어진 고 싸움이 잦아 신세를 망치는 일이 있는가하면 부녀자들은 도시로 나가 한푼벌이라도 하겠다지만 이 모든 것이 신앙유지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다가 나 혼자서 양계를 하는 것보다는 내 사업장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일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되어 닭과 케이지 시설 전부를 처분한 후 시설을 개조해서 부녀자들을 위한 편물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송학농가부업단지(일명 새마을공장)가 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한 모험을 하는데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 변두리에서 번창하고 있는 가내공업 사업장들을 2일 간 살펴본 후 자비(自費)로 중고 편물기 10대를 구입하고 강사 2명을 초빙하여 마을부녀자 20명에게 1974년 2월부터 기계편물기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구의 어느 회사로부터 수출품 하청을 받아 한 달간 일한 품삯이 겨우 12,800원(20명이 한 달간 쉼타 43매 편직분)으로 한 사람 당 640원의 노임이 배당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웃기는 일이라면서 우리들을 비웃었지만 차츰 숙련공이 되면서 소득도 많아져서 한때 50여 명으로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마을사람들에게 돈벌이 좀 되게 했다고 해서 할 일을 다한 것



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단돈 일만 원 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분들이 막상 돈 벌이를 해보더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별로 고마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남이 만든 옷에 자기 이름을 붙여 납품하는가 하면 많이 벌지는 못하면서 무절제한 쓰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절실히 느낀 것은 목사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올바르지 못한 이에게 아무리 양계를 가르쳐 주고 편물을 가르쳐 주고 돈벌이를 가르쳐 주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함께 모여 직장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같이 가나안농군학교에 입교해서 정신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교인이 되어 송학교회를 잊지 못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편물 사업을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깨닫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세례 받고 집사가 된 분도 여러 명 있으며 지금도 연말이 되면 성탄카드와 선물을 보내 오거나 인사하러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된 고마움이지요.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여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맞벌이를 해서 다소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바쁜 벌은 근심할 틈이 없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2) 송학 농가자연란 양계사업(일명 십일조 양계사업)

송학의 농가자연란이란 송학교회 신도들이 공동체가 되어 농촌의 자연환경에서 약품이나 첨가제를 섞지 않고 만든 톱밥발효 사료와 신선한 풀을 먹이며 재래식으로 키운 닭들이 낳는 달걀을 말합니다. 이 자연란은 고소한 맛이 뛰어나며 단백질과 철분은 많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적은 이상적 영양식품입니다.

이 과제는 일본 기후현의 나가지마씨가 40여 년 전부터 경영하는 독특한 양계법인데 내가 1984년부터 시험사육을 시작해 본 후 회원을 모집하여 기술 교육을 마치고 1986년 5월부터 시작하여 한때는 20여명의 가정에서 매일 5천 개의 자연란이 생산되어 서울, 대전, 수원, 제천의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형식으로 공급했습니다. 자연란 양계로 생기는 발효계분은 무공해 과채류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더니 채소의 맛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자연란으로 인해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돈이 매월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발효사료는 본부에서 만들어 농가까지 배달하고 계란은 수집하여 엄선해서 출하했습니다. 인근 농촌교회가 추천하는 농가에도 보급하여 여러 곳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과제를 송학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나가지마 농장을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자연란에서 양질의 난황유를 만드는 일과 반숙계란을 만들어 시중에 출하하는 문제도 연구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 자연란 양계방식으로 사육한 육계도 한 가정에서 사육하여 공급한바 호평을 받았습니다. 농촌교회의 한 농가에서 500수를 사육할 경우 월 50만원 정도의 순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반드시 부업으로 하되 500수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부업 형태를 벗어나면 그것은 이미 자연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란 양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도 되도록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기만 하면 건강은 문제없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농촌 목회 시작 후 지금까지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가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교인들의 자연란 양계 기술지도를 위해 100수의 닭을 시험 사육하며 여기서 얻어지는 계란은 환자 심방용으로 찾아오는 손님 접대와 자가용으로 소비했습니다. 중부고산지대인 송학은 한겨울에 -18℃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상태 그대로 햇빛, 공기, 물, 풀, 흙바닥뿐이니 별로 돈드는 것도 아닙니다. 농촌교회마다 10여 농가가 자연란 양계로 십일조를 하면 최소한의 자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연란 양계로

인해 송학교회는 널리 알려졌으며 농협 전문대의 자연란 양계 교재도 내가 만들었고 지금은 전국 농촌으로 퍼졌으며 오히려 다른데서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연란에 관한 한 전문지식이 축적되었으며 이것을 중국 농촌에도 보급시켰더니 처소교회의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3) 송학애농공동체

1966년부터 일본 전국애농회를 알게 되면서 나는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모든 농사를 가급적이면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1980년부터 농사짓는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자연 그대로'를 목표로



무공해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안전한 농산물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거래로 공급해 오던 중, 1995년 영농법인을 설립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회원들의 중요생산 품목은 자연란과 각종 채소류와 잡곡, 버섯, 산채 등 50여 종입니다. 회원 중 한 사람은 지난해 200여 톤의 무공해농산물을 주문받아 작목반에서 계약 생산하여 냉동 건조한 후 건강식품회사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먹거리를 자가소비하고 있으며 남는 것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4) 송학식육가공영농조합

1995년 일본의 자매부락인 야마가다현 도자와촌의 기술협력과 당국의 보조금 및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50평의 현대식 공장을 준공하고 무공해 수제햄, 쏘시지 등



각종 훈제식품을 생산하여 직거래로 유통시키도록 지도했습니다. 물론 방부제나 착색첨가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 (5) 송학교회 농촌체험학교

1990년부터 송학교회 안에 농촌체험 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도시의 학생이나 소비회원들이 농촌현장에 와서 자부담으로 숙식을 하며 농촌현장 견학과 체험을 통하여 농민들과 함께 땀흘리며 더불어 함께 살아보는 현장학교입니다. 5명 이상이면 수시로 진행하며 바람, 공기, 물, 풀, 흙, 햇빛과 농산물을 만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 4) 국제협력선교회

(1) 1980년부터 일본 야마다 도자와 지역과 청소년, 농민후계자, 교회지도자, 부녀자, 행정기관의 교류와 유학생 파견 등의 국제교류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도자와촌에는 그들이 한·일우호시설인 고려관이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학교회와 도자와 지역과는 지난 10년 간 상호방문 70회 (2/3는 한국 측에서 1/3은 일본측에서 방문)의 순수 민간차원의 풀뿌리 교류를 계속 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때로는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 문화와 한국교회의 영성과 우리교회의 유기농업 실습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충청북도 국제교류 자원봉사자(일본권)로 일하고 있습니다.



(2) 1994년부터 중국의 연변지역에 선교협력의 문이 열려 지금까지 조용히 실제적인 농촌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① 농민들에게 가축대부사업을 시작해서 암소 한 마리씩을 대출해 준 것이 근 100여 마리가 넘습니다. 대부 받은 소가 송아지를 나오면 반드시 갚도록 하여 그것을 다시 다른 농민들에게 분양했더니 근 200여 마리로 늘어났다고 여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② 어떤 농민에게는 소규모 농장을 개설하여 주고 축사를 건축하여 자연란 양계를 하도록 지원하고 발효사료 제조법을 가르치고 관리사를 지어 mission home으로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금은 교인들의 헌금과 내가 받는 강의료와 우리 가족들의 선교기금으로 충당했으며 갈 때마다 몇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동행하면서 선교와 봉사를 체험하도록 팀 사역을 계속했더니 자연스럽게 선교와 봉사를 위한 현장교육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③ 연변지역의 장애인 복지연합회를 돕는 일도 여러 해 동안 하고 있습니다.

④ 연변지역 농촌병원 의료선교사업 후원과 생명연장을 위한 농촌개발사업(한국, 중국, 일본 협력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선족 학생들을 일본에 3년 간씩 자립 유학토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3) 인도의 농촌복지시설 후원(장애인 시설 Seed India)과 미얀마의 농촌교회 지원(일본ARI 졸업생 후원사업).

#### 4. 결론

나는 지난 40년 간 계속해서 건축하는 일(예배당 신축, 증축, 교육관, 신용조합, 목사관, 부속건물, 부업단지과 각 사업장)과 필요한 과제 개발하는 일을 해왔는데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알맞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교회에서 평생 장기 목회를 한 결과 전도한 교인들이 확실하게 양육되어 함께 일하

게 되니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 모두가 한 집안 식구 같습니다. 우리교회는 전도나 교육 봉사사업을 꼭 우리교회 형편에 알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연중 한번은 부흥회를 하고 한번은 농민복음학교를 하며, 맥추감사절 때는 전교인이 콩보리 밥과 된장국으로 공동식사를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도록 하고, 성탄절 때는 청년들이 관내 각 기관과 불우이웃을 방문하여 소년가장을 초청해 위로하기도 합니다. 전교인이 1년에 한 두 번씩은 반드시 몸으로 교회 일을 위해 봉사하도록 권장합니다.

1994년 5월 송학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 번째로 예배당을 재건축하면서 이제까지의 나의 농촌교회개척과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 내가 은퇴하기까지의 마무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제자훈련에 역점을 두고 먼저 영적인 핵심전도요원을 양성하는데 더욱 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도력이 있는 남녀 핵심요원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들이 잘 훈련되어 조용히 34개 속회에서 말씀운동을 누룩과 같이 확장하면서 기존성도들의 영성에도 변화가 일어나 양적으로 배가되고 질적으로도 초대교회 신앙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 사역과(제자훈련) 순리치유사역(영육구원)을 겸하면서 송학교회는 바람직한 선교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학교회의 표어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공동체”입니다. 실천 강령은 ① 전교인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된다. ② 전교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된다. ③ 전교인들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힘쓰는 신앙공동체 교회를 이룬다. ④ 송학교회는 농촌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된다 등입니다.

1967년 이곳에 부임하면서 농촌교회의 자립을 위해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향상 과제들을 진행시키는 동안 목사는 이 마을에서 저들의 목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냉담했던 마을 사람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생활정

보를 많이 얻어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농촌운동을 하고 사회참여와 사회개량을 해서 잘살기 위한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즉, 복음 위임을 위한 문화 위임이라는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고 다른 농촌교회에 비해 좀더 열심히 전교인들의 영혼구원에 힘썼습니다. 그 동안 씨 뿌리는 전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인지 지금 송학교회는 거두어들이는 추수식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교회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끝까지 잘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들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꼭 이것이 전도다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랫동안 진행해 보았더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송학교회가 예전같이 자립도 못하고 선교도 잘 되지 못했으면 겨우 현상유지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처음 교회당을 신축할 때 '80명만 모이면!' (80명의 반도 못 모일 때) 하며 그 정도의 교회당 건축을 하였는데 그 교회가 비좁아 10년 만에 증축하고 그래도 비좁아 전도권내의 두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시키고도 300여명 이상이 모이고 국내외 선교도 그런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농촌목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건대 개척 초기에는 사회봉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송학지역 농촌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Need)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충족시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줌으로써 교회는 사회봉사를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삼은 셈이 됐습니다. 근래에 우리교회에 찾아오는 교역자들이 나에게 묻기를 "영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수입이 좋으냐? 좀 가르쳐 달라?"고들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농촌에 사명감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조사를 잘해보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갱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의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복음적인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는 곳에서 과제부터 진행하면 반드시 이권 다툼이나 의견충돌로 목회마저 위태롭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농촌개발사업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으나 교인들이 별로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런대로 되고 있으나 농촌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아 아쉬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나의 농촌목회의 결론은

- ① 농촌의 영혼구원을 위한 사명이 첫째요
- ② 농촌전문목회를 위한 교육과 훈련기간이 필요하며
- ③ 파송된 지역에서 장기목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촌목회에 문의한인 내가 농촌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아 교육과 훈련으로 준비한 후 외부의 도움도 없이 온 몸으로 농촌목회와 농촌개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한 새생명공동체 운동으로 결론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송학교회 생명공동체 사역에 함께 하면서 동역해 주신 송학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